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3월 20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자체 육성 신품종 감귤 3종 농가에 본격 보급-3월호 p94	과수연구과	농경과원에
○	신품종 감귤 3종 농가에 본격 보급 -3월호 p139	과수연구과	월간새농사
○	도내 육성 신품종 감귤 3종 본격 농가 공급-3월호 p125	과수연구과	월간원에
○	제주 국내육성 감귤 신품종 전시포 확대 운영-3월호 p64	과수연구과	팜&마켓
○	신품종 브로콜리, 병해 강하고 상품성 뛰어나-3월호 p123	원예작물과	월간친환경
○	2024년 감귤류 재배기술 교육생 모집 -3월호 p144	서부농업기술센터	월간새농사
○	고된 마늘 농작업 ‘기계화’로 해결 -3월호 p94	서부농업기술센터	농경과원에
○	제주, 원거리 농기계임대사업 ‘큰 호응’ -11면(24.2.2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축산기계 신문
○	제주 노지감귤 이른 발아 예상-3면 (24.3.11.)	기술지원조정과	농업인신문
○	노지감귤 이른 발아 서리피해 주의보 -7면(24.3.11.)	기술지원조정과	농촌여성 신문
○	올해 노지감귤 이른 발아 예상-9면 (24.3.11.)	기술지원조정과	한국영농 신문
○	일조량 적고 강수량 많아 농작물 ‘걱정’ -3면(24.3.13.)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신문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6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뉴제주일보
○	“영농부산물 불태우지 말고 파쇄 후 거름으로 활용하세요” -9면	제주농업기술센터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주간농업농촌소식-4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농경과원에: 2024년 3월호)

○ 자체 육성 신품종 감귤 3종 농가에 본격 보급-p94

제주도농업기술원

자체 육성 신품종 감귤 3종 농가에 본격 보급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에서 개발한 '가을향', '우리향', '달코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연내 출하형 만감류 품종 개발에 착수해 2021년 '가을향', 2022년 '우리향'과 '달코미'를 각각 품종보호 등록·출원했다.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실시했으며, '우리향', '달코미'는 지난해 21개 도내 종묘업체와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보급되는 규모는 '가을향' 2,267주(1.3ha), '우리향' 14,445주(8.6ha), '달코미' 12,767주(7.6ha) 총 3개 품종 29,479주(17.5ha)이다.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보급되는 3개 품종이 연내 수확형으로 껍질 벗기기가 쉽고 당산비가 높은 고당도 품종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품종 감귤 묘목을 구입하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ju.go.kr/agri/index.htm>)에서 묘목 생산 업체를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

과수연구과 T. 064) 760-7414
농경과원에
3월호 94

(월간새농사: 2024년 3월호)

○ 신품종 감귤 3종 농가에 본격 보급- p139

제주특별자치도

신품종 감귤 3종 농가에 본격 보급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자체개발한 신 품종 감귤 '가을향', '우리향', '달코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된다고 2월 21일 밝혔다.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 실시했으며, '우리향', '달코미'는 지난해 21개 도내 종묘업체와 통상실시

를 통해 묘목을 판매할 수 있는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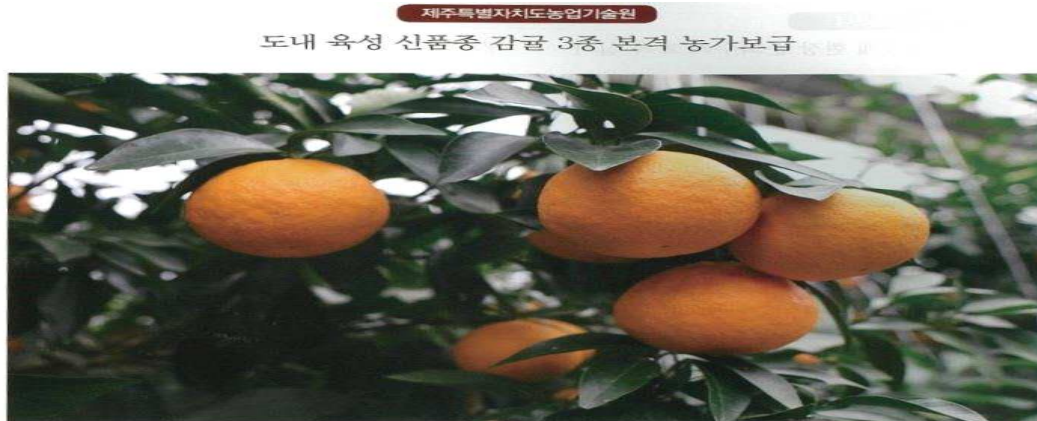
올해 보급되는 '가을향'(당도 13.4Brix)은 2,267주(1.3ha분), '우리향'(당도 13.6Brix) 1만 4,445주(8.6ha분), '달코미'(당도 14.3Brix) 1만2,767주(7.6ha분) 등 총 2만9,479주(17.5ha분)다.

기술원은 보급 3개 품종이 연내 수확형으로, 껍질 벗기기

월간새농사
3월호 139

(월간원예: 2024년 3월호)

○ 도내 육성 신품종 감귤 3종 본격 농가공급-p125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을향', '우리향', '달코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연내 출하형 만감류 품종 개발에 착수해 2021년 '가을향', 2022년 '우리향'과 '달코미'를 각각 품종보호등록·출원했다. '가을향'은 2022년 감귤농업협동조합에 전용실시했으며, '우리향', '달코미'는 지난해 21개 도내 총요업체와 통상실시를 통해 묘목을 판매할 수 있는 실시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보급되는 규모는 '가을향' 2,267주(1.3ha분), '우리향' 1만 4,445주(8.6ha분), '달코미' 1만 2,767주(7.6ha

분) 총 3개 품종 2만 9,479주(17.5ha분)이다.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보급되는 3개 품종이 연내 수확형으로 껍질 벗기기가 쉽고 당산비가 높은 고당도 품종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품종 감귤 묘목을 구입하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술원 누리집(<https://agri.jeu.go.kr/agri/index.htm>)에서 묘목 생산 업체를 확인하고 문의하면 된다. 이세영 농업연구사는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고품질 품종이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됨에 따라 고당도 품종 강신과 국산 품종의 점유율 확대에 이어서 감귤 생산량을 늘여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월호 125

(팜&마켓: 2024년 3월호)

○ 제주 국내육성 감귤 신품종 전시포 확대 운영-3월호 p64

제주, 국내육성 감귤 신품종 전시포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농업인의 감귤 신품종 평가 및 선택을 지원하고자 올해 전시포 12개소를 새로 개설한다.

전시포는 2020년 12개소로 시작해 매년 12개소씩 확대하며 지난해에는 48개소 10.1ha를 운영했다. 올해에도 12개소를 개설해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센터에서 개발한 '윈터프린스', '미래향' 등의 품종을 식재할 예정이다.

전시포는 개소별로 990㎡ 이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대상농가로 선정되면 운영 재료를 공급받고 신품종에 대한 관리·지도를 받게 된다.

정승용 농업연구사는 "감귤 재배품종의 다양화 및 자급화를 위해 국내육성 감귤 신품종이 농업 현장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월호 64

(월간친환경: 2024년 3월호)

○ 신품종 브로콜리, 병해 강하고 상품성 뛰어나-3월호 p123

신품종 브로콜리, 병해 강하고 상품성 뛰어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제주지역 주요 겨울채소인 브로콜리 신품종 육성과 확대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2006년부터 브로콜리 육종 연구에 착수해 2022년 중·만생 품종인 '한라그린', '삼다그린'을 품종보호 출원했으며, 도내 지역적응성을 검토하고 현안 문제 발굴·해결로 농가 재배를 확대하고자 새제주브로콜리연합회(회장 강상흠)와 함께 농가실증 시험을 추진했다. 특히 '삼다그린'은 올해 브로콜리 재배지에서 문제됐던 검은무늬병에 강해 재배의향이 높았으며, 상품을 또한 9월 10일 이전에 정식한 경우 90%, 9월 하순에 정식한 경우 97%에 달했다.

월간친환경
3월호 123

(월간새농사: 2024년 3월호)

○ 2024년 감귤류 재배기술 교육생 모집-3월호 p144



제주 서부

2024년 감귤류 재배기술 교육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양창희)는 '2024년 감귤류 재배기술 교육' 참가자를 2월 26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노지감귤(80명), 만감류(200명) 2개 과정으로 3월부터 9월까지 격월 4회씩 운영된다. 제주 서부지역 농업인이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760-7931~2)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감귤 생장과 병해충



발생 양상 등 많은 것들이 함께 변화하고 있다."라며, "농업인들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경험과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월간새농사 3월호 144

(농경과원에: 2024년 3월호)

○ 고된 마늘 농작업 ‘기계화’로 해결-3월호 p94

서부농업기술센터

고된 마늘 농작업 ‘기계화’로 해결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양창희)는 올해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늘 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에 나선다. 제주의 마늘 재배면적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2003년 3,842ha에서 2013년 2,733ha, 2023년에는 1,113ha로 크게 줄었다. 마늘을 기계 파종할 경우 인건비를 85.3% 절감할 수 있고 기계 수확 시에는 노동시간이 76% 감소하는 등 농작업 기계화율이 향상되면 마늘 생산비의 55%를 차지하는 높은 인건비가 절감돼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마늘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마늘 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참여단체를 모집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참여단체에 파종기, 수확기 등의 기계화 장비를 5년간 장기 임대하고 참여 단체(농가)에서는 장비를 직접 운용하며 인근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하게 된다.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직접 보고 활용하며 농작업 기계화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기계화율을 차츰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업기계화팀 T.C 농경과원에
3월호 94

(농축산기계신문: 2024년 2월 25일)

○ 제주, 원거리 농기계임대사업 ‘큰 호응’ -11면

제주, 원거리 농기계임대사업 ‘큰 호응’

입·출고와 이동 소요시간 대폭 단축(60분→15분)

제주농업기술원은 원거리 파쇄기 임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중문농협 및 남원농협과의 협업으로 농업인 만족도를 높이도록 효율적인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에는 남원농업협동조합과 '15분 도시제주 실현을 위한 농업인 편의증진 및 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협업'을 맺었으며, 이달 1일에는 중문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범)과 함께 '원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임대용 파쇄기 총 27대(중문 17, 남원 10)를 배치해 지역 농업인들의 편리한

입·출고와 이동 소요시간이 기존 6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중문농협에 담당 직원을 배치해 농기계 입출고 서비스, 농기계 수리,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남원농협은 조합원 대상 농기계 입출고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2021년에는 중문지역 농업인 43명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이용했으나, 원거리 임대사업소 운영을 시작한 2022년에는 166명, 2023년 300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94.3%의 만족도를 보이는 등 **농업인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축산기계신문 11**

(농업인신문: 2024년 3월 11일)

○ 제주 노지감귤 이른 발아 예상-3면

제주 노지감귤 이른 발아 예상

평년대비 8일 빨라져...서리피해 주의
서리 상습 피해지역은 전정시기 늦춰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겨울철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로 올해 노지감귤 발아가 전·평년에 비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리피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1~2월 평균기온은 제주시 8.5℃, 서귀포시 9.2℃로, 전·평년대비 1.1~2.4℃ 높았고, 강수량도 제주시 280.8mm, 서귀포시 191.4mm로, 전·평년 대비 52.9~149.1mm 많았다.

제주도내 해안지역의 발아기 예측결과, △제주시는 3월 28~29일로 전년 대비 5일, 평년대비 8일 빠르며 △서귀포시는 3월 26~27일로 전년 대비 2일, 평년대비 8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 순과 꽃봉오리가 서리피해를 입으면 꽃눈이 까맣게 고사하고 이후에 새순과 꽃이 늦게 발생하면 수량이 감소한다.

난방기나 보온시설이 없는 비가림하우스는 주·야간 천·측창을 모두 개방해 자연 온도에 가깝게 하고 토양을 건조시켜 발아를 늦추고 전정도 최대한 늦춰야 한다.

서리 상습 피해지역의 노지 감귤원은 방풍수를 정리해 냉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정시기를 늦춰 3월 중하순부터 10% 이하로 약하게 전정한다.

서리피해가 발생하면 요소 0.2%액을 7~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 수세회복에 힘써야 한다.

또한 병해충 조기 발생 및 확산이 예상되므로 굴응애, 더듬이병, 궂양병 등의 예찰을 강화하고 사전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3.11.
박정원 농업인신문 3.11. kr

(농촌여성신문: 2024년 3월 11일)

○ 노지감귤 이른 발아 서리피해 주의보-7면

노지감귤 이른 발아 서리피해 주의보

제주농업기술원, 전년대비 2~5일 빨라져 피해 예상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올해 노지감귤 발아가 전·평년에 비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리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고 강수량이 증가한 양상으로, 올해 1~2월 평균기온은 전·평년대비 1.1~2.4℃ 높았고, 강수량은 전·평년 대비 52.9~149.1mm 많았다.

도내 해안지역의 발아기 예측한 결과, 제주시는 3월 28~29일로 전년 대비 5일, 평년보다 8일 빠르며, 서귀포시는 3월 26~27일로 전년 대비 2일, 평년보다 8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 순과 꽃봉오리가 서리피해를 입으면 꽃눈이 까맣게 고사하고 이후에 새순과 꽃이 늦게 발생하면 수량이 감소한다.

난방기나 보온시설이 없는 비가림하우스는 주야간 천측창을 모두 개방해 자연온도에 가깝게 하고 토양을 건조시켜 발아를 늦춰야 하며, 전정도 최대한 늦춰야 한다.

서리 상습 피해지역의 노지감귤원은 방풍수를 정리해 냉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정시기를 늦춰 3월 중하순부터 10% 이하로 약하게 전정한다.

서리피해가 발생하면 요소 0.2%액을 7~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 수세회복에 힘써야 한다.

3.11.
김정자 기자 · 농촌여성신문 7

(한국영농신문: 2024년 3월 11일)

○ 올해 노지감귤 이른 발아 예상-9면

올해 노지감귤 이른 발아 예상

전년대비 2~5일, · 평년대비 8일 빨라져... 서리피해 주의
기상·과원상황 맞게 대비해야

제주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겨울철 거 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로 올해 노지감귤 발아가 전·평년에 비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리피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1~2월 평균기온은 제주시 8.5℃, 서귀포시 9.2℃로 전·평년대비 1.1~2.4℃ 높았고, 강수량도 제주시 280.8mm, 서귀포시 191.4mm로 전·평년대비 52.9~149.1mm 많았다.

제주도내 해안지역의 발아기 예측 결과, ▲제주시는 3월 28~29일로 전년 대비 5일, 평년 대비 8일 빠르며 ▲서귀포시는 3월 26~27일로 전년 대비 2일, 평년 대비 8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 순과 꽃봉오리가 서리피해를 입으면 꽃눈이 까맣게 고사하고 이후에 새순과 꽃이

늦게 발생하면 수량이 감소한다.

난방기나 보온시설이 없는 비가림하우스는 주야간 천측창을 모두 개방해 자연온도에 가깝게 하고 토양을 건조시켜 발아를 늦추고 전정도 최대한 늦춰야 한다.

서리 상승 피해지역의 노지감귤원은 방풍수를 정리해 냉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전정시기를 늦춰 3월 중하순부터 10% 이하로 약하게 전정한다. 서리피해가 발생하면 요소 0.2%액을 7~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 수세회복에 힘써야 한다.

또한 병해충 조기 발생 및 확산이 예상되므로 꿀응애, 더듬이병, 궂앙병 등의 예방을 강화하고 사전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제주농업기술원 현광철 기술지원팀장은 "조기발아한 어린 눈이 저온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후변화로 감귤 생육주기가 변화하고 있으니 기상과 과원 상황에 알맞게 농작업을 실시해"고 당부했다.

3.11. 한국영농신문 9

(서귀포신문: 2024년 3월 13일)

○ 일조량 적고 강수량 많아 농작물 ‘걱정’ -3면

일조량 적고 강수량 많아 농작물 ‘걱정’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된 흐리거나 비 날씨로 인해 일조량이 최근 사이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는 병충해는 물론 작과 불량, 낙과, 기형과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애만 하 늘만 원망하고 있다.

12월 농촌진흥청과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이달 7일까지 제주 지역 총 일조시간은 229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9.3시간, 평년 같은 기간보다 108시간이나 각각 줄어든 수치로,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일조량이 모자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조량 감소에 더해 비가 내린 날도 평년보다 많은 등 다습한 환경이 조성됐다.

1월 중 서귀포시는 열흘 비가 내리면서 평년보다 이를 가량 많은 강수일을 보였다.

지난달의 경우 비가 내린 날이 16일이나 되면서 평년보다 6일이나 비 날씨가 더 이어졌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은 13일에 그쳤다.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 2023년 겨울철 전국 강수량은 200mm를 넘어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강수량이 200mm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최고 기록이었던 1988년에 비해 무려 40.8mm 많은 수치다.

작년 12월 15일~올해 3월 7일 일조 작년보다 109.3일 적어 강수일수도 평년보다 6일 더 농작물 병 피해 등 걱정 커

서귀포시도 최근 기준으로 살펴 보면 지난 2월 16일~이달 7일까지 강수량은 114.4mm로 전년(28.5mm)보다 무려 4배나 많고 평년(44.1mm)보다 2.6배나 늘었다.

이처럼 비날씨 등으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한 상태가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도농기원은 노지감귤의 경우 강수량 증가 등으로 인해 발아가 전년과 평년에 비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서리피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도내 해안지역의 발아기 예측 결과 제주시는 3월 28~29일로 전년 대비 5일, 평년 대비 8일 빠르고 서귀포시는 3월 26~27일로 전년 대비 2일, 평년 대비 8일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어린 순과 꽃봉오리가 서리피해를 입으면 꽃눈이 까맣게 고사하고 이후에 새순과 꽃이 늦게 발생하면 수량이 감소한다.

시설과채류 중 딸기는 잿빛곰팡이병 발생 등으로 현재 기준 수량은 평년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토마토는 현재까지 수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잿빛곰팡이병 피해로 수량 감소가 예상된다.

시설 오이의 경우 정식 후 저온 피해가 있었다.

초당옥수수는 옥묘 및 정식 시작 단계지만 잿은 비날씨로 인해 정식작업이 지연되고 옥묘 증인 모종의 경우 일조부족과 고습에 의한 잎갈마름 증상과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단호박은 일조부족으로 생육이 지연되고 마늘은 흑색썩음균핵병 및 뿌리응애 발생에 따른 방제작업이 진행 중이다.

더구나 4월에서 5월 사이에 수확을 시작하는 망고는 지금이 한창 비대해질 때지만 올해는 유독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조량이 부족해 열매가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런 현상으로 인한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어서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농산물 가격이 나빠지면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악순환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창윤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서리 상승 피해를 보는 노지감귤원은 전정시기를 늦추고 피해가 발생하면 수세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라며 "기후변화에 맞는 농작업은 필수 3.13.이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서귀포신문 3차

(뉴제주일보: 2024년 3월 20일)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6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과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회장 이석근), 서귀포시연합회(회장 김영순)는 19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파쇄작업단이 각 농가로 찾아가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쇄작업단은 농촌지도자 회원 18명이 6개조로 나눠 활동하며 도내 134농가(45ha)에 대한 파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3.20.

현대성 기자 canne 뉴제주일보 6

(제주매일: 2024년 3월 20일)

○ “영농부산물 불태우지 말고 파쇄 후 거름으로 활용하세요” -9면

“영농부산물 불태우지 말고 파쇄 후 거름으로 활용하세요”

도농지원, 안전처리 작업단 발대
도내 45ha·134 농가 대상 서비스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서는 제주시 작업단, 20일 서귀포시 신흥동에서는 서귀포시 작업단이 출범한다. 이를 시작으로 도내 45ha·134 농가(제주시 23ha·67 농가, 서귀포시 22ha·67 농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파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감귤 전정가지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농경지 화재를 예방하



제주도농업기술원이 19일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영농 작업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있다.

며 파쇄한 가지를 토양에 환원해 토양 비옥도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은 “영농부

산물은 토양으로 환원하면 거름이 되지만 불태우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각 대신 파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20.
제주매일 9
최영준 기자

(제주매일: 2024년 3월 20일)

○ 주간농업농촌소식-4면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4-10호(2024.3.18.)

여건변화 대응 농업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보급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초당옥수수

- 육묘기간이 길어지면 묘가 노화되어 수량 및 상품성 크게 감소하므로 적기 정식 필요

■ 단호박

- 3월 중하순 본격 정식을 앞두고 경운 및 비닐피복 작업중
- 본엽 4~5매 시 정식. 정식 전 멀칭 및 터널용 폴대 설치
- 밑거름: 10a당 퇴비 1,500, 요소 37, 용성인비 75, 염화칼리 34

■ 구쪽파

- 비닐피복 포장 위주로 잿빛곰팡이병, 노균병 일부 발생. 방제 필요

■ 마늘

- 전년 대비 2차 생장이 20일 정도 빠름
- 2차 웃비료 시용: 3월 이내, 10a당 요소 12kg + 염화칼리 10kg
- 웃비료 늦을 시 벌마늘, 2차생장, 노균병 등 발생이 심함
- 흑색썩음균핵병, 잎집썩음병, 뿌리응애 방제 필요

■ 중·만생양파

- 2차 웃비료 시용: 3월 이내, 10a당 요소 17kg + 염화칼리 8kg
- 동부지역 일부 습해피해, 노균병, 잎마름병 발생 중. 방제 필요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20.3.20. 제주매일 4